

제2절 가사 작품

1. 「경계가」

아해야 들어봐라 내일이 신행이라 / 친정을 하지하고 시가로 들어갈제
 너의심사 어떠하뇨 내심사 갈밭없다 / 백마에 짐을싣고 문밖에 보낼적에
 경계할말 하두많다 구댁에 입문하와 / 당일신례 치룬후에 시부모님께 가권할제
 세수를 일찍하고 문밖에서 절을하고 / 가까이 들어앉아 방이나 더우신가
 잠이나 편하신가 살뜰이 문안후에 / 가만히 앉았다가 그안에 돌아나와
 진지를 차릴적에 식성을 물어보며 / 음식을 맑게하여 정결하게 차려들고
 치마앞 걷지말고 조용히 앉았다가 / 진지상을 물린후에 할 일을 생각하여
 시모님께 사뢰보아 분부대로 일을하고 / 씩힌일 다한후에 너의방에 들어가서
 일손을 바삐들어 허둥지둥 하지말고 / 자직자직 하여서라 저녁을 당하거든
 어디로 누우실고 자서히 사라보아 / 자리를 편히깔고 이불을 펼쳐놓고
 방이나 추우신가 자세히 문안후에 / 부모님 근력보고 부모님의 말씀대로
 한말씀 풀수하면 불효리 일으리라 / 가만히 앉았다가 절하고 돌아나와
 등촉을 돋워놓고 할일을 생각하고 / 책을보나 일을하나 늦도록 앉았다가
 잠들거든 잘것이라 / 아해야 들어봐라 또한말 알리리라
 부모님 병들거든 책임을 더욱하여 / 권속이 많더라도 종에게 맡기지말고
 병세를 보아가며 음식을 자주권코 / 백약처리 누우실제 살손들어 고이잡고
 대변을 만날적에 온순한게 주장이라 / 송나라 진효부는 시모가 낙치하여
 기약을 못하시니 젖먹여 효양하고 / 당나라 노효부는 도적이 밤에들어
 놓치지 아니하니 이같은 착한일은 / 너희도 알았어라
 아해야 들어봐라 또한말 일으리라 / 다른일 다던지고 화순하기 주장이라
 부모를 효양할제 시장할때 없이하고 / 한말삼 불순하면 불효라 일으리라
 어버이 시킨일은 싫다고 하지말고 / 부모님이 꾸중거든 엎드려서 감수하고
 아무리 늙으나마 발명을 바삐말라 / 발명을 바삐하면 도분말 될것이니
 사색을 보아가며 노기가 풀린후에 / 조용히 앉아서 차례로 발명하면
 부모님이 웃으시고 용서를 하시리라 / 아해야 들어봐라 또한말 일으리리
 가장은 하늘이라 하늘같이 중할소냐 / 언어를 조심하여 사사히 공경하라
 친하다고 아담말고 나이없다 방심말고 / 각별하게 바뜰어서 그안해의 성심이고
 밭가에 마주앉아 손님같이 대접하니 / 저녁을 할지라도 공경을 피할소냐

학업을 권면하여 낙제하게 하지말라 / 침석이 고후하여 없는체 하지말라
 밖으로 맡은일은 안으로 간섭말고 / 안으로 맡은일은 밖으로 믿지말라
 부모님이 꾸중커든 황송하여 감수하고 / 가장님이 꾸중커든 웃으면서 대답하면
 부부지간 사이에는 화순밖에 없나니라 / 아해야 들어봐라 부모와 지아비는
 인의에절 굳건하여 헛말이 있다해도 / 다쓸여 버리니라 첫재로 어려운것은
 시동생과 지친이라 재물을 수히하면 / 동생과 불화되고 언행을 잘못하여
 지친과 불문하면 그아니 두려우며 / 그아니 조심할까
 일척포 끊어내여 동생들과 입히여라 / 지친은 우익이라 우애없어 어이하고
 무사하게 지낼제는 날보듯이 하거니와 / 급할때를 당해보면 지친밖에 또있는가
 빈부를 혜지말고 음양을 보지마라 / 값없고 좋은보배 글밖에 또있는가
 빈부를 혜지말고 음양을 보지마라 / 값없고 좋은보배 글밖에 또있는가
 덕행도 글에있고 옛법도 글에있고 / 살림도 글에있네 장부의 당한지라
 아무련들 현달하니 만사가 어렵도다 / 공명이 나타나면 뉘라서 당할손가
 글에열중 할지라도 살림살이 살펴보소 / 집을떼어 모은재물 말년에 어찌할고
 부귀빈천 되더라도 상부옛뜻 변치마소 / 부모자식 천대마소 잘섬기고 못섬기는
 생전백년 사후백년 보존하면 효도로다 / 어화세상 사람들아 밥맛을 알려거든
 밥맛을 알기보다 먹을도리 먼저아소 / 하나님이 사람낸제 아니굽게 하였건만
 전토없다 게으리고 밤이되면 잘지라도 / 낮이되면 힘써하소
 한때를 잊지말고 농사를 전폐마오 / 농사를 못지으면 삼동을 어찌하고
 친구의 재물에는 예수를 분명하라 / 재물로 인정잃은 자고로 있느니라
 써는사람 해만되고 속인사람 악화로다 / 무단히 욕하는놈 부디부디 갈지마소
 악한사람 수이죽고 착한사람 덕이되고 / 천우신조 하느니라
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리저리 생각하니 / 인심이 무정토다 세상사 매정하다
 저기가는 저여자야 너무바빠 가지말고 / 가기잠깐 기다려서 이내말을 들어보게
 친가에 다닐적에 친부모를 봉양하고 / 시가에 가거들랑 시부모를 효양하여
 그가정을 섬기기는 삼종지예 행실이요 / 부부는 정분이요 예다한 가장이라
 가장이 쟁을내도 말대꾸 부디마오 / 내몸이 고단하면 편안하게 지내기는
 그대에게 매였노라 하늘같은 부모라도 / 말리지 못하거든 속이나 시원할가
 세간만 다스리고 자식낳아 잘기르고 / 문외출입 자주마소 일없이 왕래하는
 저여인은 잘못살고 이웃험담 하는사람 / 가까이 하지마소 내되리어 누명입고
 욕먹기 쉬우리라 / 여자로 생긴몸이 출입이 불가하니
 출입을 할지라도 살펴서 할것이요 / 남자가 가는길에 앞에서서 가지말고
 잠깐서서 기다리다 지낸후에 다시가게 / 여름날 덥다하고 옷벗고 가지마라

남자의 호불호가 뉘손에 있단말가 / 노소간의 남녀들아 친척척단 찾아가
 부디자주 가지마소 천케보기 아주쉽다 / 시부모를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고보면
 하나님이 감동하여 어진자식 생겨주어 / 효성도 있거니와 부모광채 빛이된다
 봉제사를 당하거든 정결하게 작만하여 / 소실을 밝게하소 상중에 허우우 돌아가니
 삼간초옥 적적한데 산등에 화초로다 / 낚시대를 잡아메고 청계로 내려가니
흐르나니 물결이요 뛰노나니 고기로다 / 녹류는 춤을추고 경가는 잔잔하고
 백구는 잠이드니 그도또한 경치로다 / 이세상 백성들아 이내훈도 들은후에
 부디착념 하시어서 이글을 보고나서 / 본을받지 못한다면 금수나 다름없다

2. 「김대부 훈민가」

천지만물 생긴후에 오륜법이 있었나니 / 수백품진 가난이 한심하니
 친구가 없어지니 누가나를 찾으리오 / 슬프다 세상사람 이내말씀 들어보소
 나는또한 무식하고 세상일을 모르오나 / 금세상을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
 윤리를 천케말고 부모뜻을 거스리면 / 친척불목 시비된다 그대도록 불목하니
 몹쓸죄악 살이죄는 어이그리 자주난고 / 사람들이 잘될려면 참아어이 그리하리
 부모를 잘섬기면 착한자식 생겨나고 / 오른일을 많이하면 죄악이 벗어지고
 복은비록 못받아도 화는자연 면하리라 / 일신이 편안하면 천금이 부럽잖다
 부모천대 부디마소 악한자식 나느니라 / 적악하던 저백성아 문호보존 더낫도다
 사람의 큰죄악은 불효밖에 또있는가 / 행실없는 자손들은 성화같이 세월간다
 어찌하여 죄를짓고 자손에게 전하는고 / 남의행세 웃지말고 제도리만 닦아서라만
 중히말고 형제다툼 부디마소 / 한가문에 같이나서 골육친척 되었으니
 그아니 중할손가 조그만은 재물로서 / 중한정이 무너진다 형제지정 간데없고
 원쑤같이 되어간다 저대로 불화타가 / 자손에게 전해져서 대대로 원쑤된다
 재물은 부운같고 형제는 수족이라 / 사람이 수족없고 일신인들 어이하리
 남으로 생긴정이 부부정이 지중하다 / 양성이 한데모여 자손을 생장하고
 조상향화 보전하니 그아니 중할손가 / 어화세상 남자들아 부부인정 변치말아
 궁박한 살림살이 차차로 나아지니 / 부부인정 지중하다 칠거지악 없거들랑
 조강지처 박대마소 독수공방 원망할제 / 은덕이 해가되고 살림살이 패가하니
 자손인들 전할손가 / 부부서로 화순하면 가난도 면해지고
 집안도 유순하다 / 적악한 백성들아 옛법에서 벗어나면
 인사가 좋을손가 인사있는 사람보소 / 접빈객을 착실하고 손님대접 극진하다
 문전에 오신손님 박대하여 보낸후면 / 원근친구 없어지고 뉘라서 찾아오리

조석으로 보는이웃 형제같이 화순하고 / 있고없고 전곡간에 초대하여 대접하고
 급한이웃 구제하여 좋은일 하자스라 / 내일족 있다해도 이웃사촌 당할손가
 친구를 찾아가도 밖에서 소리하소 / 주인이 나와듣고 청하거든 들어가서
 할말만 바삐하고 수이돌아 올것이라 / 손님이 오래자이면 남의소경 고이하고
 주인보기 답답하다 무단히 앉았으면 / 쓸말도 좋거니와 망발하기 쉬우니라
 남자들 없는집에 친척인들 자리갈가 / 무례한집 사람들은 철없이도 왕래하여
 떠날줄을 몰어는고 / 저는비록 좋다하나 남의소견 어떠하고
 수절정례 회정하니 저런인사 탓이로다 / 여인이 가는길에 뒤를따라 가지말고
 멀리섰다 갈것이라 / 노인이 가는길에 앞에서서 가지말고
 사양하고 물러서서 앞세우고 갈것이요 / 남녀유별 분명한데 법없이 행한다면
 금수와 다를손가 주색을 탐치마소 / 망신패가 아주쉽다
 취중에 잘한말이 깬후에 우새로다 / 남의계집 탐치마소 욕심으로 얻은재물
 다만일시 뿐이로다 / 남과시비 부디마소 분해서 싸우다가
 살인나기 쉬우니라 / 일시분을 참으시면 백년화를 면하리라
 남자몸이 되어나서 무슨일이 광채될고 / 금동옥녀 안아보기 하마너무 늦었구나
 남인북촌 나의연배 귀자애자 길러내여 / 인간자황 하옵건만 경경하신 우리내외
 내내도록 걱정이라 비재오십 나의몸아 / 창천이 몰각하고 조물주도 시기한다
 근근혈맥 부모육체 약종반약 나의몸이 / 무사함이 조상이라 불효지정 삼정중에
 무후외대 그죄악이 나의몸에 당해올줄 / 어느누가 알았으리 부귀안락 무엇이며
 고대광실 좋다한들 어느자식 물려주며 / 옥토전답 만재인들 구뉘에게 전해주리
 인간생활 칠팔십에 내몸하나 없어지면 / 초록단풍 흘날릴때 이실흔적 간데없고
 추풍낙엽 단풍가절 잎이지면 그만이니 / 사고무인 외로운몸 사후종정 혗것일세
 오호세상 인간들아 나의소회 들어보소 / 소회라니 수심이요 수심모아 소회로다
 오호세상 빼른광음 인간소식 재촉한다 / 이시절이 어느땐고 실종고씨 상사이후
 정사년 십월이라 무궁하신 나의엄마 / 영결인가 떠나신날 나의손목 놓지않고
 눈물지며 하신말씀 학발존고 설화로서 / 선후차례 아니오나 나의혈맥 너하나뿐
 다시없어 더욱슬다 망극하신 우리엄마 / 노천에서 우시리라 자식도리 나의죄악」
 어이이리 가련한고 오호세상 인간들아 / 무자함이 허다한들 부모슬하 나뿐일까
 슬푸다 세월이여 단상위에 봄들었다 / 만산초록 아름다워 옛가지에 자랑한다
 비금주수 금수들도 자식얻어 길러놓고 / 날며불며 귀여하고 불한불서 좋은때라
 동서남북 나의동무 요조현부 데려오고 / 옥화사랑 영접하여 우습밭이 되였건만
 우직한 나의몸은 적막강산 설음이고 / 슬프도다 나의몸이 죽지않고 늙어지면
 백발노인 이신세야 병이들어 누어진들 / 어느자식 구병하며 인간세상 이별한들

어느자식 울어줄고 무용지물 이내몸을 / 어디에다 비유하리 무의식한 금수들도
 애친지정 지극하여 오매불망 잊지않고 / 초목에다 비유한들 만수초목 열매맺어
 해마다 번성하고 토색에 비유한들 / 백옥이 돌에나고 오곡에 흙이난다
 오흡도다 내한몸아 오흡도다 수석금수 / 만물에서 비유못할 의지없는 나의몸아
 물도가면 샘이나고 해도지면 달이뜬다 / 아이야 울지말아 너는가면 참슬프다
 이말저말 말다하고 공회형제 정분으로 / 읍내까지 따라와서 손을잡고 슬피우니
 무정한 기적소리 우리남매 이별하네 / 잘가거라 손흔들제 어느사이 간곳없다
 막막하게 한참섰다 정신없이 돌아오니 / 날은이미 황혼이라 이내몸을 어디다가
 비유할곳 조차없다 무식한 금수들도 / 애친지정 지극하여 정다웁고 좋아한다
 초목에다 비유한들 만수초목 열매맺어 / 해마다 번성한다 이내몸은 어이하여
 부모사랑 모르고서 허망하게 늙어간고 / 오희세상 여러분네 소회하니 한이없고
 글을쓰니 눈물이라 대강대강 기록하니 / 슬픈것이 무자화라 꽃을꺾고 들고와서
 옥황님께 호소할까 구원천리 찾아가서 / 엄마보고 호소할까 오희세상 인간들아
 나의몸도 몸이련가 나의몸도 인간인가 / 무자회에 꽃이필때 눈물지어 울어주소

3. 「무자화의 설움」

춘산만화 꽃이 피고 화수녹엽 새가운다 / 조제화발 좋은 시절 차홉다 무자화여
 삼월동풍 흘날릴때 후원도리 만발하고 / 초양해당 붉은 꽃에 편편호접 춤추건만
 남산북산 두견화야 가지가지 피를 묻혀 / 조국강산 그리우나 더욱 슬다 너의 꽃은
 무자화가 너 아니냐 시부모는 돌아가고 / 시호시호 부재래라 화월동 지나가고
 녹음방초 성화시절 꽃을 잃은 옛가지나 / 낙화결실 그때로다 가지마다 열매매져
 아름답고 재롱큰만 차홉다 구자화야 / 너는이미 허사리라 우주만물生生전래
 너와 나와 허꿈일세 오흡도다 인간들아 / 초록무생 가련한중 백년인세 멀잖은데
 취생몽자 셀잖으냐 창천이 월백하고 / 탄금산이 묵난이라 삼경적막 잠을 깨워
 후사를 생각하니 만사허의 나의몸아 / 내어이 가련하고 지필묵을 갈아놓고
 사십허동 기록하자 구곡간장 맷힌수심 / 만광으로 솟아오고 만첩소회 설은 설화
 경경일신 나의몸아 어이이리 박명한고 / 사천년전 단군이후 반도중화 아름답다
 팔도산수 역역한중 동해지상 울진이라 / 곡강한줄 구비친물 예로성의 성적이고
 중구중부 솟아올라 박문우가 원수로다 / 무인공의 무인공에 내린연연
 꽃이피고 열매맺어 춘하추동 만첩청산 / 매자천송 번경하고 화수지정 좋은가별
 자자손손 아름답다 만자천손 버려두고 / 백락인생 행락다다 인간기세 하였서라
 오히려 막극거든 귀자귀손 바라다가 / 혈혈하신 나한몸을 사일유아 버려두고

북망산수 무정킬레 영결천고 망극이라 / 한살두살 자라나서 엄마품을 떠나잖고
 무남독녀 귀여로다 일년매월 좋은가절 / 녹의홍상 어린동무 오며가며 넘놀적에
 엄마아빠 부렵건만 부친없는 내몸이라 / 엄숙하신 우리모친 부녀지정 막중하나
 오호망극 아빠존안 성향이 막막하다 / 춘하추동 사시절에 나의소회 망극이야
 애자하신 우리엄마 고이고이 나를길러 / 근근유전 당신혈맥 이여서 나갈적에
 인간춘일 봄이오면 꽃이피고 열매맺어 / 애지중지 나를길러 만세유전 번성이라
 주야장천 빌었도다 호통의 우리낭군 / 어이이리 부류이며 천진난만 어린몸이
 어이이리 박명한고 사일만에 부친없고 / 사세시에 조부상사 서산낙일 저문날에
 풍우상설 비상하다 나어리고 약한몸이 / 백만사를 몰라보고 십륙방년 자랐도다
 유가유법 귀문예의 대강으로 익힌후에 / 군자호귀 선택하고 길일양신 좋은날에
 유자유손 만복하게 택일한후 전안하여 / 백년의탁 단사이라 녹수장유 드던날에
 봉유정각 높았도다 / 정묘년 좋은날에 남씨댁의 대성으로
 일여부족 번경이라 아조등국 태평시절 / 창창하고 숭정하여 매월광채 받은마음
 봉주서각 이아닌가 거룩할손 남씨문벌 / 오대성의 화촉일세 우리당일 그날부터
 시부모의 가득사랑 군자님의 은은하심 / 낙화가정 이아닌가 춘추시절 화창한날
 자모님께 귀령이라 백수존안 우리자모 / 나의등을 어루만져 순순여연 하신말쌈
 나의혈맥 너한몸이 유전이라 어미마음 / 위로해라 다자다남 너가하여
 남씨가문 섭섭하면 내혈맥은 일반이라 / 인간세상 어미종적 전해줄건 너뿐이고
 영결가신 너의부친 사후종적 너를믿고 / 구천서도 안심이라 금옥같은 너의몸이
 어미종정 썩지말게 만사천주 너가하라 / 지극하신 그말씀이 나의귀에 남아있다
 오흡도다 나의몸아 수심광음 꿈결이고 / 청춘시절 과객일세 화락극락 가정살이
 사십광음 늦었으니 슬하바란 남녀간에 / 양단구곡 희망이고 인간삼십 내마음도
 문밖까지 따라나와 눈물로 작별할 때 / 슬프다 우리자모 무슨일이 그리바빠
 신행치송 못하옵고 무정한 객창소회 / 애달고도 원통하다 오십지년 사신경과
 초목이 녹아질듯 서천을 향망하여 / 은근히 흐른누수 진정하기 어려울때
 오빠의 만폭정서 집안에 전해져서 / 누수로 읽어보니 글자마다 정답이요
 줄줄이 슬픈비애 얹지로 참으면서 / 자세하게 살펴보니 만담정회 모든온정
 아버님의 수이행차 더욱더욱 반가우나 / 뵈올수록 가이없고 생각사록 통곡이라
 몇날밖에 유련없이 훌훌이 행차하시니 / 불효막심 이혹한에 어찌왕환 하셨는지
 사렴무궁 이압든차 무망중 삼종숙씨 / 이곳찾아 오시어서 황황반겨 소문듣고
 삼가일손 대우없어 오신건만 다행이라 / 오빠나외 때때비회 중하게 안여기고
 허가얻어 가실일을 어찌감당 하오리까 / 고생고생 다하면서 시름없이 살자스라
 일념에 그린심사 필서로 기록못해 / 형아동생 하지만은 그리웁기 한이없다

외가성식 육속한가 두려운 이곳이라 / 맥이없고 기력없어 청대분에 앞서가니
 대모현침 안계시니 만행이고 다행이라 / 동기각각 편안하고 대소각댁 안과하니
 만행이고 다행이며 무사반석 태산같다 / 일신이 무겁도록 공손하게 받자오나
 집생각이 간절하며 일이 손에 안잡한다 / 슬프다 오빠오빠 시일어서 촉하여
 신년길일 날을 받아 악수상봉 고대고대 / 하고픈말 첨산해 부족하나
 단문단언 주리오니 우리남매 슬픈회포 / 필설로 다하자면 일권지 부족이나
 대강대강 그치오니 부디안녕 하옵소서

4. 「백남답기서」

오호라 우리인생 인세풍부 남일체로 / 전생차생 무슨죄로 백발부모 못모시고
 불과나이 십세되어 우리자모 망극지통 / 진야모야 어인일고 천지가 무너지고
 일월이 회색이라 / 혈혈한 우리잔명 어이하여 보전할까
 어린제남 엄마찾아 밤이면 엄마찾고 / 낮이면 호천망극 우는소리
 귀전에 사모치고 음친의 일천간장 / 우리백형 누수뿌려 남매형제 위로할제
 우리들도 장성하여 영화불때 있으리라 / 이그려 나달가서 순풍절 다달으니
 우리백형 우귀일자 더욱더욱 통곡이라 / 막막한 이가정에 뉘라서 어찌살고
 천지가 아득하며 남매형제 작별할제 / 구전자모 유감이며 우리부친 위로하여
 뉘라서 막아낼가 / 남매형제 애통하면 우리자모 인도하여
 유순부덕 우리자모 추호감격 없을손가 / 고목창생 우리들이 재생죄인 다시되어
 요조숙녀 우리형아 연분정이 새로우나 / 구원자모 쓸데없고 무슨시름 잊었든고
 공주같이 길으실때 뉘아니 칭찬하리 / 삼오이팔 뜻이없고 삼종우귀 때가있고
 부모노릇 조심하여 변변하게 주선하니 / 죄송함이 그지없고 모녀작별 어이할고
 주야로 못잊어서 슬픈비애 새로날제 / 만고풍상 겪은후에 무산여애 남았다가
 이런일이 웬일인고 우귀일자 맷아내어 / 우연히 중한병세 천병만약 효험없어
 태산같이 높은자애 하해같이 입힌자에 / 또다시 끊단말가 호천망극 우리자모
 어디가서 다시보며 / 애중하신 나를두고 이런일이 웬일인고
 천지비록 광대하나 애통비애 둘곳없네 / 상탁예절 차린후에 강보유아 어린동생
 천지간에 한번봄도 우리혼자 뿐일러니 / 이런광경 다시보니 우리외에 뉘있을고
 상탁앞에 슬픈눈물 강을모아 보게되면 / 구원선경 몇마린지 배를불러 잡아타고
 야인자모 애흘전에 태산자에 다시만나 / 선왕전에 고하여서 강보유아 엄마찾아
 슬픈정경 영영히 고하여서 / 천명무강 안되거든 월궁에 솟아올라
 오작교 다리놓아 은하수 물을건너 / 옥황께 상소하여 인세에 미진모녀

다시회생 하련만은 / 현적유난 이여한을 속절없이 못풀겠네
 슬프다 우리부모 만산평야 농부들도 / 홍렬이 재산하면 집을찾아 돌아오고
 날짐승 기는짐승 석양이 돌아올제 / 어미동생 찾건마는 집떠난지 몇몇해에
 다시올줄 모르는고 여자옛법 어김없어 / 우리형제 우귀이력 남알게도 부끄럽다
 신행전에 자모상은 우리형제 뿐일리라 / 좋은날을 택일하니 슬픈비희 며칠안돼
 시가로 보낸후에 집이비여 어이하고 / 허리굽혀 하시던일 역역히 새로워라
 신행일자 닥쳐오니 생가를 작별할제 / 누수방울 소가되고 슬퍼다 우리자모
 어린동생 생각하니 설상가상 이웬일고 / 철옥같은 나의질아 단불이 나비같이
 며칠아니 가려두고 이광경이 무슨일고 / 겹겹설음 생각하니 풍진난세 이아닌가
 우리엄마 남의두문 자애시로 구하실줄 / 어이그리 모르는고
 우리형장 능활도량 강부유치 젖을먹여 / 사색없이 접대하니 그도또한 장할시고
 은혜만만 그지없어 재삼부탁 은혜로다 / 슬프다 여자유행 촉처에 가소롭다
 애지중지 양육키는 남녀일체 같건마는 / 입은상복 벗어두고 채의홍상 가통이라
 세상법도 괴이하다 우는동생 떠쳐두고 / 교자에 오를적에 상하당이 다젖는듯
 잘가거라 잘있거라 할말도 다못하고 / 풍진같이 달려오니 우애하신 우리백남
 음식을 나눌적에 군말을 하지마라 / 아해야 들어봐라 봉제사 접빈객은
 부녀의 책임이라 제사를 당하거든 / 각별히 조심하여 의복을 갈아입고
 제미를 지을때엔 희도록 다시쓸고 / 정결하게 할찌니라 비자루질 바빠마라
 먼지가 나느니라 / 금불나무 때지마라 불티가 나느니라
 아해야 들어봐라 보채나마 쓰던음식 / 어느때나 주지말고 종들이 있더라도
 팔세를 하지마라 절편을 정케괴고 / 정신을 차려가며 음식을 먹지말고
 의복을 풀지말고 등촉을 끄지말고 / 지키고 앉았다가 닦이울기 고대하여
 행사를 하온후에 / 음식을 고루나눠 원성없이 하여스라
 봉제사도 하려니와 접빈객을 잘하여서 / 손님이 오시거든 책임을 더욱하여
 없다고 하지말고 / 말소리 크게하여 사랑방에 듣지않게
 방감을 정히하여 매사에 정성있게 / 수저를 놓을적에 차등있게 하지말고
 음식솜씨 정히하고 손님이 앉았으면 / 주인이 무류하고 안흉이 나느니라
 아해야 들어봐라 자식을 가르침은 / 장래영광 보기위해 가르치고 기르니라
 수태를 하거들랑 침식을 바로하고 / 음식을 정케먹고 기울게 서지마라
 기울게 눕지말고 십삭을 그리하여 / 자식을 낳게되면 어른이 방정하여
 총명이 더하리라 문왕의 모친께서 / 이같이 하였으니 본받아서 할지어다
 두세살을 먹은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/ 장난을 절금하고 이복을 가려하라
 명주옷은 입지말고 새솜은 놓지말고 / 식은음식 주지말고 상한음식 먹지마라

귀하다고 어리지말고 버릇없게 하지마라 / 입다고 광장하여 정신잃게 하지마라
 맹자의 모친께서 맹자를 키우실제 / 가거를 세번옮겨 학궁옆에 살으시고
 간곳마다 가르쳐서 훈화하며 살았으니 / 너희들도 본을받아 쪽이지 말라스라
 아해야 들어봐라 노비도 권속이라 / 수족없이 어찌살며 들에나가 농사지어
 상전을 봉양하니 그아니 불쌍하며 / 혈육은 한가지라 나이어린 종이라도
 얻은자식 함께길러 제때에 해입하고 / 배고플때 없게하고 재가를 하온후에
 치산을 하였어라 / 표백기만 하더라도 몸치레 하지마라
 헌의복 기위입고 잡음식을 먹었어라 / 집안을 자주쓸어 먼지앉게 하지말고
 이웃에 내왕할때 무럼을 쓰고가고 / 급한일이 아니거든 밤으로 내왕말고
 남의집에 가거들랑 더욱조심 하여서라 / 남의말은 하지말고 남의흉내 내지말고
 인물평은 하지말고 부귀를 흡선말고 / 음식을 구색마라
 아해야 들어봐라 시가에 처음갈땐 / 조심이 많건만은 혼망하기 쉬우니라
 대강으로 기록하여 이책을써서 경계하니 / 이책을 잊지말고 시시로 내여보면
 유익할때 있으리라 이밖에도 경계할말 / 누누히 많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
 이안쓰고 끝마친다

5. 「시골 여자 슬픈 여자」

봄

후원초당 봄이드니 마른잎에 새싹나고 / 꽃피운 따신바람 사람마음 흘혀내네
 반지창을 의지하고 하염없이 앉았으니 / 일천간장 뻔힌슬음 서울낭군 그리워라
 무정하다 우리낭군 근년여름 한번간후 / 운산백일 멀리막혀 편지조차 한장없네
 삼월삼진 강남으로 일년일도 오는제비 / 옛집을 찾건마는 임은어찌 안오신고
 행여나 그리운님 꿈에나 만나볼까 / 난간에 누웠으니 잠인들 쉽게오라
 야속하다 저꾀꼬리 허다한곳 다버리고 / 너도춘풍 빗무러기 그처럼 외롭거든
 나의창전 왜우나뇨 오라는 꿈아니오고 / 장장춘일 젖은벼개 눈물로만 젖었어라
 마음하두 답답하여 광주리 옆에끼고 / 나물캐러 등산가니 산과들에 각색꽃이
 온천지가 꽂빛이라 호기춘풍 봉접들은 / 꽃을찾아 춤을추고 높이나는 종달새는
 비비재재 짖어귀어 듣고보는 모든 것이 / 곡회만 자꾸된다 가지각색 풍풍우우
 갖은고초 인간여자 약한간장 녹여낸다 / 스물두해 내봄철이 무광하게 가련하다
 속절없이 가련하네 인생부득 갹소년은 / 이내간장 재만되네 일거월재 깊을수록
 늙을밖에 할일없다 인간칠십 고래희는 / 옛사람이 이룬바요 백년삼만 육천일은
 일장의 춘몽이라 물결같이 흘러간다 / 무정하다 청천백일 어이그리 빨리가노

속절없이 가는세월 이내간장 재만되네 / 꽂아새야 온천지야 어이그리 정막하뇨
 오고가는 저구름아 서울철이 너가거든 / 구구한 나의한을 우리님께 전하여라
 춘풍삼월 긴긴날에 꽂보고 오는나비 / 향내맡고 오는별이 서로섞여 왕래함을
 넋을잃고 구경타가 종일토록 뜯은나물 / 한광주리 못채우고 일력이 뜨지없어
 돌아서기 바쁘구나 급히가려 돌아서니 / 일보이보 맷힌눈물 방울방울 님이로다
 백여대촌 끌뚝마다 무럭무럭 검은연기 / 제멋대로 오르건만 이내가슴 타는데는
 연기없이 재만되네 답답하다 일가족은 / 만첩심장 타는가슴 한번이나 이해할까
 하루소창 하온죄로 여기저기 투박오네 / 두려울사 시아버님 신구의 철천심경
 기막히고 애달하다 만득애자 경성유학 / 막중세엄 와여해서 영어일어 복습하고
 태고적 묵은습관 한없이 붙여두고 / 엄중한 꾸중말씀 규중소관 신분으로
 외춘한다 걱정이며 세정없는 시어머님 / 남의사정 모르시고 석반이 늦었다고
 무수히 걱정하여 엄중하게 묻는말이 / 일촌에 누구누구 몇몇이 다갔더냐시
 속이 청년색씨 면면이 다그런가 / 봄이오면 꽃에설음 여름오면 잎에설음
 춘하추동 사시절에 설음고통 무서워라 / 부끄러운 젊은시절 남편없다 탄식하고
 일거월세 애태우니 내간장도 너나같다 / 구시대의 우리들도 입문한지 사흘만에
 애정한번 못이루고 책짐지고 절간가서 / 근수십년 아니와도 저릿타시 탄식할까
 이렇듯 걱정하니 가련하다 인생이야 / 나의전생 무삼죄로 차시여자 되였든고
 주저앉아 울어볼까 울기조차 자유없네 / 불합이합 가정제도 시집살이 허다할제
 상하로 한데모여 비정지창 무서워라 / 젊은청춘 님그리고 독수공방 어이할꼬
 누웠으니 잠이오나 무궁한 나의회포 / 누구에게 하소할꼬 늦은봄 짧은밤에
 잠한숨 못이루고 앉았으락 누웠으락 / 억만가지 모든공상 곡회만 자꾸난다
 벽개의 잠못이뤄 만날봉자 축수하니 / 봄밤이 짧다해도 님생각과 함께 길다

여름

가는 세월 바르건만 오는 여름 드디도다 / 화초년년 푸른빛은 여름 비춰 이제온다
 더운 가슴 무쳐잡고 서쪽하늘 바라보며 / 우리님 오실날만 하루 이틀 기다리기
 일일이 삼추같다 후원에 목단난초 / 오고가는 나비별이 향내 맡고 춤을 추고
 옛집찾은 제비들도 들뽀 위에 마주앉아 / 쌍운을 우지지니 구곡간장 이심회는
 어디가서 회원할꼬 아니다 그만두자 / 모든 공상 다 버리고 일신안보 하여보세
 오장에 붙은 불은 이세상에 몇몇인고 / 나도 오직 좋은 기출 쌍원이 자랄적에
 만사의 무안으로 이팔이구 방년시절 / 부모설전 구슬같이 장래에 기린만복
 금석같이 있었거든 오늘날 이간장을 / 꿈에나 생각할까 가고 오는 허다세월
 서울낭군 상봉한들 무정한 님의 심정 / 철석같이 나를 잊어 연약한 이내몸에

피골이 상련하다 허다한 깊은 사정 / 누구라 동정하리 살대같이 뻔한설음
 진정하여 앉았으니 이왕에 붙은 불은 / 점시라도 진화될까 하던 일을 손에 놓고
 사방을 살펴보니 구비구비 설은 눈물 / 여광여최 나의 심사 미칠듯 하올적에
 난데없는 구두소리 귓가에 얼찐들려 / 놀라다시 살펴보니 날산양복 간단행군
 문전에야 도달했네 반가울사 우리낭군 / 두려운듯 반가운듯 시골쪽 양안에는
 양복쟁이 한번보니 사자같이 두려우며 / 가슴이 울렁인다 구습가정 소생으로
 뛰는 심신 진정없어 허다한 나의 사정 / 누굴보고 위로할꼬 푸른 수양 목단장에
 오래간만 그리던님 만나기는 만났으나 / 어이그리 쓸쓸한고 여름한날 야심경에
 달빛조차 슬프는데 염천원로 오신님은 / 얼마나 괴로운지 이불 위에 누운대로
 그냥 그만 잠이드니 구곡간장 깊은 한을 / 말한마디 못 알리고 오래 암흑 잠기였던
 어슬풋한 새벽빛은 창외에 비취어서 / 공상에 두른 머리 두손으로 움켜쥐고
 한숨쉬며 눈물 흘려 여자의 박양신분 / 끝없이 탄식할 제
 청천의 뇌성벽력 이혼이란 무삼말고 / 시집 온지 칠팔년에 오고가는 허다 세월
 뉘를 위해 살았으며 뉘를 오직 기다렸노 / 춘풍도리 꽂힐 때와 추우추동 낙엽시에
 눈물로 벗을 삼아 세월을 재촉할제 / 유학가신 우리낭군 목적한바 졸업하고
 양단존전 입택하여 안락한 가정생활 / 일편단심 축복하여 태산같은 우리님이
 하해같이 깊은지라 확실히 머물때에 / 천만가지 님을 위해 천만가지 나를 위해
 육체를 노력하여 마음을 쉴새없이 / 앞날의 모든 희망 철석같이 믿어오며
 허다한 궂은고생 낙원으로 믿어오며 / 진심갈력 하였드니 흉중에 뭉친 평화
 아침풀에 이슬되여 떠다니는 유월비상 / 연하위에 떨어졌네 모든탄식 다버리고
 시댁에게 떨어졌네 학문을 몰랐으니 / 생존경쟁 문화시를 내어찌 알았을꼬
 오늘날 극도형편 전공가격 도왔구나 / 슬프다 이세상에 구속과 압박으로
 철망속에 혜매이는 불쌍한 구여성들 / 끝없이 슬픈사정 광대한 청년남자
 무지로 몰랐거든 어느누구 이해할꼬 / 고통자심 허다하니 화락편작 어디있노
 남녀기중 동정으로 천언만담 앵무일로 / 간절히 위로한들 아이와 동풍같이
 지나갈것 뿐이로세 우이독경 분명하다 / 구고의 외로짓택 여자와 다르시고
 허와식 많은동정 한갈같이 흘러오나 / 나에게는 가소롭다 억만같이 모든일이
 곡회만 자꾸된다 탄식한들 쓸데있나 / 설어한들 무엇하면 배울때는 지나가고
 어릴때도 지나갔네 결박인년 던져두고 / 불경이부 그말씀은 죽어도 이집에서
 죽든살든 이댁에서 님오실 그때까지

가을

흐르는 유수세월 덧없이도 빨리간다 / 봄가고 여름가니 가을이 또왔구나춘

거추래 추우춘풍 기후순환 모순인가 / 가을바람 산들 불어 님가신차 풍우 같네
 우혈없는 이내마음 설은 눈물 앞세우고 / 먼데큰길 바라보니 허리없는 나의 형용
 지향없이 반겨하네 찬란한 황국단풍 / 때를 알아 빛을 내네 동원에 어린 국화
 찬서리에 자라나서 아름다운 방화촌에 / 찬서리로 무광하다
 가련할사 우리여자 애심청춘 허다풍상 / 믿을 곳이 바이없네 칠월칠석 은하수에
 오작교 다리 놓아 견우직녀 연분으로 / 일년일도 상봉작별 자고로 흘러오나
 부슬부슬 세우춘풍 별회알 뿌리는 듯 / 고추팔월 대보름날 높이중천 밝은 달아
 한양성중 오늘밤에 나의 가슴 막막표현 / 긴잠에 취한님께 세밀히 전하여라
 행복받을 말이 전정 소소히 살피소서 / 유유한 이세상아 내가 정말 무슨죄로
 때를따라 모든 조석 저의 새에 잠기유수 / 침묵히 냉락하다 가족들도 이 가슴에
 한등의 불만된다 불평이 있고 평화에 / 잠들어 계시오나 아아조석으로 불어오는
 쌀쌀한 찬바람은 온몸이 오실오실 / 어른슬하 나의도리 절후따라 옷지를 때
 장장추야 긴긴밤에 한숨과 동무하여 / 경경한 잔촉하에 따듬질과 님생각에
 뒤섞여 밤새운다 늦을 가을 저 황국아 / 뉘를 위해 높이떴노 하늘끝 저기력아
 짹잃고 어이오노 맑은 음성 흰 얼굴에 / 이목이 젖었는 듯 나를 버린 님이건만
 나는 어찌 못 잊는고 간장 썩은 피눈물로 / 지목을 내어놓고 오장에 박힌한을
 붓끝으로 할려하니 여름에 몇날동안 / 구구한 맷힌 한을 한말씀도 못여쭈고
 상식없는 무식말로 만지정찰 쓴다한들 / 첫줄한자 안보시고 비비찢어 버릴거라
 에라그만 붓을 놓자 힘없는 손에서는 / 붓대만 떨어지고 말숙한 눈에서는
 눈물이 자주적셔 한번도 못깜던눈은 / 밤새도록 뜨고있네 날위로하는 저 촛불아
 고요히 춤을 추고 이대도록 밤새운다

겨울

잠이든지 들이든지 함박눈이 펄펄와서 / 사방팔도 오갈위에 은세계를 이뤘구나
 눈위에 모든 자국 매화주렴 분명하다 / 깨끗한 맑은 설광 시름 많은 이간장을
 더욱 한층 수란하다 먼데가신 우리낭군 / 소식조차 끊어지고 해는 점점 흘러간다
 연광은 물러가고 설풍은 높아간다 / 웃음띄던 도화양엽 눈물로 주렴되니
 늘기가 더욱 분타 천부지모 장탄하니 / 연죽을 벗을 삼고 설음원한 생각하니
 호호망망 슬프도다 사정없는 모진바람 / 북쪽으로 쫓아와서 연한살을 외이는듯
 이탁없는 이육체는 천지냉냉 떨고있네 / 대천에 굳은 얼음 명년삼월 봄이 오면
 너는 오직 녹으련만 이 가슴에 이빙판은 / 끝없이 굳게 있다 어느 봄날 호천지에
 춘설같이 풀어질까 정막한 빈 방안에 / 그늘과 둘이 앉아 앞날을 생각하니
 자나깨나 한숨눈물 넋을 잃고 공상하며 / 갈길을 생각할제 영원으로 가려하니

원통하다 우리신세 안해되어 남편에게 / 사양한번 말못하고 살아서 무엇하노
 사람되어 이 세상에 사람노릇 못해보고 / 살면오직 길이있나 염나차사 원망일세
 나를어서 데려다가 평화를 안겨주소 / 못잊을세 우리양친 금옥같이 양육하여
 만복을 바라다가 동치도 못보시고 / 얼마나 원통할까 살기도 괴롭도다
 사세가 양난하니 이일을 어이할꼬 / 사람이 귀치안타 초목금수 부러우면
 유축이 되였던들 만사에 자유로서 / 길이낙원 할것이라 사람이 왜되였노
 적체가슴 진정하고 세월을 길게 잡고 / 희망을 앞세워서 결발낭군 회복거든
 님의 팔에 안기여서 하해같은 동정사랑 / 태산같이 받아안고 죽음 떠날 그때까지
 열 손으로 빈다한들 그것이 무엇인가 / 어느때나 희망하노 아아 반짝이는 별들아
 내 가슴에 꼭찬 한을 너는 오직 알겠는냐 / 이 회포 싫어다가 우리님께 전하여라
 님도역시 사람이니 문명지식 많다하고 / 남의적원 어이할꼬 사생을 판단간에
 활기없는 님이시나 적악적원 생각하니 / 호골이 여연이라 우리가슴 살펴보면
 그분네도 비참하지 님을 한번 다시만나 / 취주의 하소연을 낱낱이 다대볼까
 운산천리 먼 먼길에 홍안이 왕내 없다 / 편리한 문명시대 오고가는 무정전화
 경편철도 굉장히다 끝없는 하소연을 / 개개이 총집하여 심중에 담아두고
 삼동선날 지낸후에 산과 들에 눈이 녹고 / 봄가고 여름와서 오래간만 그리던님
 다시 한번 만나보고 슬프고 가련하다 / 무광일월 구여성들 전생에 무삼죄로
 수심청춘 우리들이 무광한 낭만세상 / 장장이 거쳐가니 유유하신 창천이여
 청춘을 살피소서 꽃같은 우리청춘 / 유수세월 던져두고 삼십사십 반평생을
 님없이 다시올까 잠없는 야심경에 / 첨첩이 박힌 한을 두어자 기록하나
 오자낙성 고이하니 독자제는 널리하량 / 하시고 대소 마시오 그져어논 마시오
 꽃같은 청춘일월 광해변기 홀로서 / 결발연분 잊을손가 객수청천 궂은비에
 심신이 산란하여 형님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네

6. 「우미인가」

천하의 항강등국 산도좋고 물도좋다 / 아왕영영 죽은후에 무산선녀 놀던곳에
 만고절색 미인얼굴 우미인이 새로나니 / 외공자의 따님이요 초패왕의 부인이라
 미인얼굴 고을시고 미인태도 거리하다 / 단청으로 채웠는다 백옥으로 깎았는가
 팔세아미 고운얼굴 구름속의 명월이요 / 옥빈홍안 고운태도 초생의 반달이라
 십오십육 지낸시절 초패왕을 만나거든 / 장할시고 우리대왕 역발산 기계세라
 천금을 비겨들고 우주간에 횡행할제 / 우뢰같은 호통소리 어느놈이 앞에서라
 장감의 장한군사 거룩한 싸움되고 / 유정장의 십만대병 수수상이 되었더라

꾀가많은 변정이는 유낙주의 모셔두고 / 칼질잘한 항장이는 선봉장이 되였도다
 홍문연 기러기를 활촉끝에 꾀여들고 / 오초마 나간양은 해마대정 높이타고
 중원천자 달려가니 꽃과같은 우미인이 / 은여다마 씨려내여 수준하고 고은얼굴
 오색단청 그려내여 부귀영화 좋은팔자 / 미인되에 또있는가 홍무연 높은잔치
 대왕따라 구경하고 아방궁도 한시절에 / 대왕따라 구경하고 풍진무적 우리대왕
 팔년풍진 다지내야 한번실수 없었더니 / 오늘날 해와성에 하나님아 야속하다
 유정장의 십만대군 첨첩으로 싸고나니 / 범과같은 우리대왕 함정에 드단말가
 꽃같은 우미인이 그물속에 드단말가 / 구의상 깊은방에 적막히 누웠으니
 춘풍은 소설하고 야월은 침침한데 / 계명산 높은곳에 옥통수를 불어대니
 사향곡 좋은소리 팔천제자 흘어진다. / 초가성 슬픈노래 대왕님 들어시고
 잠든잠을 놀래깨여 팔척장금 손에들고 / 옥장막에 비겨서서 사면을 둘러보니
 가련하다 우리군사 추풍낙엽 되었구나 / 가련하다 우미인아 잠은어이 깊이자오
 나는이제 갈것이니 이별주나 마셔보소 / 우미인의 거동보소 자던잠을 놀라깨여
 원양금침 밀쳐두고 비취금을 앞에놓고 / 팔자아미 찡그리며 대왕전에 하는말이
 만고영웅 우리대왕 태산같이 믿었더니 / 오늘밤 하혜성의 이별이 판단말가
 보고지고 보고지고 대왕따라 가고지고 / 가련하다 이별이야 대왕님아 편이가소
 대왕님은 가거니와 소녀몸은 어이할꼬 / 적적무인 빈방안에 내몸혼자 있단말가
 오추말은 집승인데 대왕따라 가건만은 / 이내몸은 사람인데 대왕따라 못가는고
 날살리소 날살리소 대왕님요 날살리소 / 대왕님의 거동보소 목민소리 하는말이
 팔천제자 흘어지고 내몸인들 어이하리 / 오추마 늙은말은 채쭉한번 훌쳐치면
 적진중에 들어가니 내한몸은 살거니와 / 연연약질 너의몸이 어찌하여 면하리요
 우미인의 거동보소 그말듣고 할말없서 / 촛불앞에 비겨서서 백옥같은 두귀밑에
 쇠청같은 눈물이라 좌우면에 앉은사람 / 어느누가 아니우리 섬섬옥수 높이들어
 맥온잔에 술을부어 대왕전에 드리면서 / 자부시오 자부시오 하직술을 자부시오
 대왕님의 거동보소 그술받아 마신후에 / 대왕님이 하신말이 팔년풍진 초패왕이
 오늘밤을 당할손가 한평생 없던울음 / 너를위해 우는구나 우미인아 술을부
 막죽한번 먹어보세 우미인아 노래하소 / 막죽한번 구경하세 우미인아 손을내오
 막죽한번 쥐여보세 우미인의 손을잡고 / 비가강개 노래불러 노래를 마친후에
 오추마를 비겨타고 채쭉치며 떠나갈제 / 우미인을 이별하니 원촌에 닦이울고
 옥장막에 서리진다 달빛도 처량하고 / 물소리도 슬프도다 우미인의 거동보소
 옥장막에 비겨서서 비단치마 휘두르며 / 우는낯을 가리우고 가련하다 오늘밤에
 대왕앞에 죽으리라 대왕님 거동보소 / 오추마을 비겨타고 울지말아 우미인아
 설어말아 너의얼굴 너를보니 안취하리 / 유정장계 가게되면 부귀영화 할지로다

구정을랑 잊지마소 우미인이 하는말이 / 대왕님요 그말마소 우미인의 하는말이
 이몸이 곧죽어도 두가장을 섬기겠소 / 옛글에 하였으되 불경이부 본을받아
 이내몸이 까막까치 날아다닌 항해되여 / 반공중에 솟아올라 대왕따라 가고지고
 원하노니 이내몸이 일척장금 하해되여 / 칼집속에 꽂혀들어 대왕따라 가고지고
 팔년풍진 지낸후에 태평년을 배설하여 / 대왕님과 함께앉아 희희낙낙 하잤더니
 가련하다 이별이야 하나님아 이웬일고 / 대왕님요 이웬일고 대왕님은 천자되고
 소녀몸은 황후되어 구중궁궐 높은집에 / 백년해로 하잤더니 오늘날 해와성에
 하나님요 이웬일고 장화경 좋은터에 / 황금옥을 지어놓고 온갖화초 심은후에
 꽃구경을 하잤더니 가련하다 이별이야 / 하나님아 이웬일고 소상강연 꽂이피고
 동정호에 달뜨거든 대왕님과 배를타고 / 선유하며 놀잤더니 가련하다 이별이야
 대왕님아 이웬일고 형산백옥 깎아내여 / 옥지환을 지은뜻은 백옥같이 굳은인정
 님과함께 노잤더니 하나님아 이웬일고 / 석경을 앞에놓고 분단장을 하는뜻은
 이내얼굴 치장하여 님의눈에 드잤더니 / 오늘밤 하해성의 대왕님아 이웬일고
 원양침을 지어놓고 비취금을 지은뜻은 / 화촉병풍 둘러치고 님과둘이 자잤더니
 가련하다 이별이야 대왕님아 칼빼주오 / 대왕님이 하는말이 너의절개 그리하니
 천추만대 무궁토록 네이름을 내손으로 / 오래도록 일어리라 대왕님의 거동보소
 칼을빼여 주는구나 우미인이 칼을받아 / 두손으로 넙적들어 가는목을 길게빼여
 칼을물고 엎드리니 꽃과같은 붉은피가 / 칼머리에 솟아나니 애석하다 우미인아
 불쌍하다 우미인아 구이산이 무너져도 / 미인여한 무궁토다 고금열녀 많건만은
 이런절개 있을손가 대왕님의 거동보소 / 팔척장금 손에들고 쌍봉투구 덮어쓰고
 봉의눈을 부럽뜨고 운문갑옷 떨쳐입고 / 가죽포대 찌끈매고 오추마를 비겨타고
 적진중에 들어간들 제아무리 당할손가 / 역발산 기계센들 오강수를 건널손가
 오추마의 거동보소 주저주저 아니하고 / 오던길로 돌아간다

7. 「화전가」

어화세상 동무들아 구십춘광 봄이로다 / 뒷동산에 두견새는 봄소식을 전하온데
 무심한 우리들은 봄 온 줄을 몰랐구나 / 규중에 깊이 싸여 여중지사 하노라고
 시절을 몰랐더니 / 만화방초 볼자시면 춘삼월이 분명하다
 상촌 하촌 동무들아 화전놀이 가자시라 / 일년삼백 육십일에 규중에 있던 몸이
 하로 소풍 못할손가 소풍삼아 화전가자 / 각성각댁 통기하야 친구 벗들 서로 정해
 이날 갈가 저날 갈가 서로서로 의논하여 / 그중에 좋은날을 골라골라 생각하니
 삼월삼진 분명하다 / 그날부터 기다리니 고대하기 힘이든다

이삼월 긴긴해는 하로가 무서운데 / 하물며 정한날은 삼사일이 앞에섰다
 동해에 돋은 달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/ 다시 또 돌아오니 받은날이 당도했다
 일년가절 허다하나 삼월삼진 제일일세 / 어의하여 받은 날을 서로서로 잊지않고
 아침조반 일찍하고 몸단속을 하였구나 / 의복치장 볼작시면
 서서이도 이쁜 맵시 곱게곱게 다듬어서 / 초록배단 웃저고리 채색단장 곱게하고
 한산모시 세단치마 주름잡아 둘러입고 / 난개생목 접보선을 맵시있게 지어신고
 하도집신 판총배기 석호맺어 지어신고 / 일보이보 나가보니 자취마다 모양난다
 의복치장 그만하고 몸단장을 하여보세 / 몸단장을 볼작시면
 이전보다 고은얼굴 서로서로 태어난다. / 백옥같은 얼골빛이 연지분을 성격하니
 오리뿔강 고흔양은 꽃과같이 견줘보자 / 눈습맵시 지운양은 여덟팔자 모양으로
 봇꼴으로 그린 듯이 팔자이마 완연하다 / 머리치장 볼작시면
 반달같은 삿치개와 샛별같은 챔빗으로 / 머리 설설 내려가려 금봉채에 맵시난다
 수양버들 연한가지 허리태도 여전하다 / 좋은꼴로 차츰차츰 조용조용 들어가며
 산도구경 물도구경 꽂도보고 들도보고 / 새짐승도 구경하고 온갖만물 살펴볼제
 산구경 볼작시면 만학천봉 솟은곳에 / 천봉만학 벌린양은 평풍둘린 형상이라
 물구경 볼작시면 골개골개 흐른물이 / 구비구비 폭포되어 물소리도 웅장하다
 물구경 그만하고 꽃구경 하여보세 / 백백홍홍 나무중에 무슨 꽃이 피였는고
 온갖만물 화창한데 구십춘광 봄이로다 / 당실당실 연자꽃은 시냇가에 피여있고
 야들야들 수담꽃은 옥계상에 피여있고 / 너울너울 부용꽃은 연당중에 피여있고
 너들너들 해당화는 명사십리 피여있고 / 도리도리 돌개꽃은 이골저골 피여있고
 요요한 수심꽃은 남북창에 피여있고 / 봉실봉실 매화꽃은 백설중에 피여있고
 황금같은 수담꽃은 녹수간에 피여있고 / 서리춘풍 좋아하고 매화단 국화꽃은
 만장앞에 피여있고 / 칭개칭개 접수꽃은 동해이월 바래있고
 반지머친 석류꽃은 옥창앞에 피여있고 / 차문주가 살구꽃은 목동촌에 피여있고
 물진물주 당해꽃은 선화당에 피여있고 / 천지많은 앵도꽃은 뒷동원에 피여있고
 석달열이 백일화는 백화중에 오래있고 / 소식적막 국화꽃은 구월구일 바래있고
 망월중에 갈대꽃은 황국단풍 바래있고 / 임유규목 칫이꽃은 이등저등 피여있고
 일삼주지 진주꽃은 상산사호 바래있고 / 늙고젊고 노고꽃은 남먼저로 피여있고
 오색단장 봉수꽃은 후원단장 피여있고 / 축담우에 목단꽃은 꽃가운데 임군이다
 한양서울 오얏꽃은 우리임군 성씨로다 / 오얏꽃 무슨일로 풍우를 만낫는고
 초당앞에 혼초꽃은 부모봉양 하자시라 / 오리뿔강 복사꽃은 부부지락 이에있다
 향기로운 난초꽃은 형제우애 하자시라 / 희고희고 저배꽃은 삼월달에 눈이로다
 곱고고운 은매화는 일석가인 모양이라 / 붉고붉은 화방꽃은 당치마와 한빛이라

보기좋은 작약꽃은 허물없이 무던하다 / 시부님내 모든꽃은 땘생각에 눈물난다
 이꽃저꽃 많고많네, 어이하야 다볼손가 / 꽃구경 그만하고 날짐승을 구경하자
 노을노을 수풀속에 온갖잡새 날아든다 / 문채좋은 범나비는 사람보고 반기는 듯
 봄빛좋다 자랑마라 춤을추고 왕래한다 / 소리좋은 꾀꼬리는 봄빛을 자랑하고
 오락가락하는 모양 사람간장 다녹인다 / 슬피우는 두견새는 불어재야 불어재야
 슬피울고 날아드니 / 연약하다 여자마음 너소리에 눈물난다.

의복벗은 탈갑새는 혈벗었다 극정마라 / 엄동설한 지나가고 구십춘광 봄이온다
 아침저녁 뱃죽새는 배고프다 근심마라 / 동쪽에서 바람일고 하늘에 비가오면
 보리풍년 들게되면 너먹을것 생겨난다 / 밭귀논귀 메주새는 분부있게 노래한다
 뒷동산에 이산 저산 빼국새는 농사하게 / 재촉한다 풍년새는 풍년될줄 미리안다
 양지쪽에 까치꿩은 좋은때를 만낫도다 / 울고가는 저기력아 누가편지 전하든야
 화전소식 전했도다 / 거년 칠월 칠석일에 고국찾아 가느라고

만리장천 높이떠서 강남가던 저제비야 / 때를어찌 잊지않고 옛집을 찾노라고
 날카로운 날개펴고 반공에 높이날아 / 지지재재 하시온데 무심한 우리들은
 옛집을 못찾고서 수심으로 지낸구나 / 말잘하는 앵무새는 사람 흉내내시옵고
 인정좋은 절역새는 서로인정 통하는 듯 / 목청좋은 따옥새는 따옥따옥 울고있고
 문채좋은 공작새는 좋은 날개 펴고있고 / 꼽박꼴바 걸른까치 자주자주 짓는소리
 무슨기별 전하드냐 좋은기별 전했도다 / 날짐승 그만보고 길짐승을 구경하자
 기운좋은 호랑이는 길짐승 중에 으뜸이요 / 꿈에 보던 저 꿩이는 아들 낳을 정조로다
 꽤 많은 여우새끼 소인놈에 흡사하다 / 다리긴 황새새끼 우편배달 분명하다
 달구경 그만하고 꽃과 풀을 구경하자 / 이등 저등 칠기줄은 갈듭치를 외운듯이
 천추만고 잊을소냐 / 원국유삼하는 법이 가지가지 저 뽕나무
 베풀사를 배와보세 누에를 갖다 놓고 / 뽕나무에 잎을 따서 누에새끼 길러날 제
 겨우 한달 못가여서 입으로 줄을 내여 / 꼬치를 짓는 양이 재주도 묘하도다
 여자 범절 분명하다 / 누에 길삼 않을손양 등피슨산 저 고사리
 볼록볼록 새로나니 백이 숙제 슬프도다 / 깊은 산에 불탄 낭군 너울너울 잎이 되어
 인삼창치 좋은 나물 출마성채 맛이 난다 / 신길잎과 뚜갈잎은 우리 보고 춤을 춘다
 구경도 좋다니와 낱낱이 다할소냐 / 오늘 노름 극진하여 화전하기 바빠 간다
 무슨 꽃이 좋을소냐 꽃 중에도 참꽃이라 / 빛도 좋고 향기 좋다 어서 바삐 가자시라
 이등 저등 헤어질 제 몸단속을 어서 하자 / 녹의홍상 만물치마 견줄치어 다시 입고
 하신풍에 성상이라 전우같은 좋은 머리 / 구름같이 얹은 모양 금봉채에 맵시난다
 물명주 석자 수건 머리 우에 장끈 매고 / 비단 소매 반만 걷고 섬섬옥수 높이 들어
 가지가지 후려잡고 봉지봉지 태칠 적에 / 좋은 봉지 먼저 끊어 머리 우에 꾹이놓고

쌈가 단가 맛을 보며 많이많이 때쳐다가 / 서로서로 합하여서 눈빛같은 떡가루로
 이리저리 꽃을 섞어 분길같은 두 손으로 / 처사유수 흐린 물을 옥수로 떠다가서
 마치 맞게 반죽하고 산도 좋고 물도 좋다 / 평평하고 좋은 곳에 동네 성기 솔뚜껑을
 석산 위에 걸어 놓고 두리화통 불을 기려 / 고목풍상 마른 나무 불 한부석 태워 놓고
 물같은 기름치리 이편저편 뒤쳐가며 / 번쩍번쩍 찌져내니 모양제도 볼작시면
 동쪽 바다 떠오르는 보름달 형상이라 / 꽃일런가 떡일런가 이름짓기 어렵도다
 좋은 맛을 볼작시면 음식중에 어른이라 / 육미봉탕 팔진민들 이보다 낳을 손가
 맛도 좋고 빛도 좋다 / 산신님게 제사하자 산신님 고할 적에
 두손 모아 비는 말이 / 화전하는 여러새댁 지성으로 축원하오
 못된 허물 잊으시고 임시제사 흡향하소 / 상봉하는 이 인생들 수복 다남 하게 하소
 우마육축 번성하고 농사오곡 허황하소 / 몹쓸 재앙 물리치고 좋은 복을 받게 하소
 지성으로 빌고 나서 차례로 좌를 하니 / 한 일가가 분명하다
 서로서로 하는 말이 여러 벗들 들어 보소 / 한 장을 골라내어 부모 봉양 모를손가
 각기각기 봉개하고 일가친척 생각하자 / 형제 우애 모를손양 차례로 봉한 후에
 친구 벗 서로 알자 재미있게 논아 먹고 / 그럭저럭 놀고 나니 오늘 해도 거진 간다
 서산에 저 햇빛이 저녁 연기 분명하다 / 여보게 벗님들의 노름놀이 그만하고
 어서 바삐 들어가세 금년 금일 돌아가면 / 명년 오늘 기다리세 우리 몸이 여자되어
 저믄 걸음 가당하리 노름놀이 좋아해도 / 여자 부덕 모른손가 우리집에 있는 식구
 문을 열어 내다본다 / 만수무강 늙은부모 손자 울어 걱정한다
 태산같은 중한 가장 체례없다 꾸중한다 / 노비전속 하인들은 저녁 늦다 바래난다
 아해들 앞세우고 동무벗들 서로 잡고 / 천천히 완보하여 조용조용 내려오며
 벗들아 들어보게 우리 이팔 처녀시에 / 친가 부모 하신 말씀 칠거지악 상지여라
 여자들이 하는 법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/ 가장에게 공손하라 일가계족 화목하고
 형제 우애 하여시라 칠거지악 벗어나면 / 아무래도 사는이라 공경하고 공순해라
 여자 마음 억난법이 무수히 조심해라 / 여자 직업 할 일이라 이복음식 삼개여라
 두번 세번 하는 말이 잠시인들 잊을손양 / 어서어서 들어가자 집을 찾아 자지시라
 차례로 내려올 제 이 곳이 어디멘양 / 높은 등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펴보니
 경치도 황홀하다 진정하기 어렵도다 / 작별할 제 약수 온정 세세각각 헤어지명
 잘있거라 잘있거라 / 명년춘에 다시 만나 재미있게 놀아보세
 부디부디 잊지 말고 다시한번 놀아보세